

月間建築情報

79. 9. 21 ~ 10. 20

78年度 国内外 建設 4 兆원

建設業体数 4,200, 従業員 48万 - 경제기획원 조사

9月20日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78년도 建築系統計 調査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르면, 78년은 건축경기가 활발했던 해로써 大規模建設工事(아파트)와 대기업의 자체공사가 건설경기를 유도했으며, 公共部門 土木工事は 77년보다 다소 鈍化된 것으로 밝혀졌다.

国内 4,200個 業体が 건설한 建築 및 土木工事 実績을 部門別로 비교하면, 建築은 77年工事額 8,478億원에서 78년에는 2兆5,154億원으로 196.7%가 증가한 반면, 土木은 77년 1兆2,528億원에서 78년 1兆4,147億원으로 15.5%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建設業体는 77년에 3,875個에서 78년에는 4,200개로 8.4%가 증가했으며, 종업원은 77년의 407,809명에서 78년에 484,213명으로 18.7%의 증가율을 보여, 業体数 增加率보다 雇傭率이 크게 앞지르고 있다.

建築審議, 57%가 조건부 통과 - 서울시

38%는 반려, 거의 駐車場 造景基準미달

8月1日의 建築規制 緩和措置 이후 부쩍 늘어난 건축허가 신청분 중 90% 이상이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 위반으로 반려를 당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9月21日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열린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려진 건축허가신청분 103건 가운데, 공사시 시정한다는 조건부 통과 건수가 57.2% 59건에 달했으며, 38.8%에 해당하는 40건은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하자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겨우 4%인 4건 밖에 안됐다.

서울시 건축관계자는 건축허가신청자의 대부분의 관계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반려 또는 조건부 통과분의 반 이상이 駐車場法을 위반하고 있으며 30% 정도가 조경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있다고 말했다.

建設部, 建築關係法 改正案을 마련

- 建築法 一增 · 改築申告범위 확대, 用途制限완화등
- 建築士法 一工事監理專担事務所制의 新設
- 住宅建設促進法 一住宅組合육성, 優秀住宅部品 認定制

건설부는 9月24日, 建築法 및 同施行令, 建築士法, 住宅建設促進法의 改正案을 마련,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정부·여당권 심의에 넘겼다. 각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

▲ 建築法 = ① 都市計畵区域등 建築許可 対象区域에서 增 · 改築 申告對象을 현행 10m²를 30m²로 완화한다. ② 建築許可 対象区域 外에서는 用途 · 規模 · 構造에 관계없이 200m²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일 때에만 建築許可를 받도록 단순화하였다.

지금까지는 특수건축물인 경우 100㎡ 이상, 목조건축물인 경우 300㎡, 목조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200㎡ 또는 2층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③ 不良材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KS규격표시품이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부 장관이 品質基準品으로 인정하는 것만 사용하게 한다.

▲建築法施行令=① 自然綠地地域의 容積率을 60%(중전20%)로 크게 완화했다. ② 專用工業地域에서 工場附設學校(대학·전문학교·고등학교)의 건축을 허용한다.

▲建築士法=① 共同住宅·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工事監理專担事務所가 監理할 수 있게 한다. ② 工事監理專担事務所에는 建築士外에 電氣·機械·煖房등의 기술자를 확보하게 한다. ③ 工事監理專担事務所가 監理를 하지 못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建築設計事務所의 補助士가 工事現場에 常駐하여 工事 監理를 하게 한다.

▲住宅建設促進法=① 각종 住居用設備品(예: 주방용품·도어록 등)에 관하여 優秀住宅部品の 認定制를 실시, 메이커를 보험에 가입케 하고, 瑕疵가 있을 때에는 保險会社에서 개수 또는 보상하게 한다. ② 優秀住宅部品の 認定制度는 中央設計審査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住宅組合에 관한 규정을 신설, 職場·地域組合에 대해서 金融 및 稅制上的 지원을 한다. ④ 組立式住宅 部材의 구조, 斷熱 및 遮音등의 性能認定制度를 실시하여 組立式住宅의 質적수준을 향상한다. ⑤ 전국을 8개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별로 25평형 單獨住宅 1종씩 표준설계도를 보급한다. ⑥ 住宅建設事業全体에 土地開發公社를 추가하여 土開公이 國民住宅財源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漢江邊 9곳에 大規模 公園 造成

80~85年間, 400億 들여—서울시

서울市는 9月25日, 80년대 도시정비사업으로 내년부터 85년까지 5년간 총 400億 원을 들여 漢江邊 高水敷地 247万평 중 비교적 지대가 높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汝矣島 北쪽 21万坪 등 9개 지역 130万여坪에 公園을 조성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서울시 면적의 7.3%를 차지하는 漢江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水質淨化를 뒷받침하는 한편 漢江邊을 따라 들어선 아파트團地 주민들에게 休息施設을 주며 86년 아시안 올림픽, 88년 世界올림픽競技 誘致를 위한 都市整備事業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公園이 들어설 곳은 ▲汝矣島를 비롯 ▲第2 漢江橋 望遠洞 쪽(10.7万평) ▲第2 漢江橋 永登浦쪽(5.6万평) ▲第1 漢江橋 龍山쪽(14.3万평) ▲潛水橋 盤浦쪽(18.4万평) ▲第3 漢江橋 新沙洞쪽(15.1万평) ▲뚝섬(16.1万평) ▲蚕室大橋 南쪽(16.7万평) ▲4戶大橋 밑 광나루(12.5万평)등이며, 이들 지역은 모두 漢江다리 주변으로 敷地가 비교적 높아 물이 잘 들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다.

서울시, 美觀地區 適用幅을 조정

美觀地區 各種別로 25m~15m 씩

9月26日,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美觀地區 폭을 정할 때 도로 양편에 일률적이고 12m 씩으로 잡아 오던 것을 앞으로는 1種美觀地區의 경우 각각 25m로, 2種 및 3種美觀地區는 20m, 4種 및 5種美觀地區는 15m 씩으로 잡기로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美觀地區의 각종별 최소면적만을 정해놓고 일률적인 美觀地區隔을 적용, 심한 경우에는 單一筆地內에서도 前面의 일부는 美觀地區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일반건축규정을 따르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각종별 正方形 垜地 最小面積을 기준으로 하여 差等 적용키로 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1種美觀地區의 경우 垜地 最小面積이 660m²(200평)이므로 垜地형태를 正方形으로 가정하면 한변이 25.69m로 美觀地區의 幅은 25m로 잡는 것이다.

각종별 垜地 最小限度面積 및 美觀地區 조정폭은 아래표와 같다.

| 종별(美觀地區) | 垜地最小面積 | 美觀地區조정폭 |
|----------|-------------------|---------|
| 1 종 | 660m ² | 25m |
| 2 종 | 330m ² | 20m |
| 3 종 | 330m ² | 20m |
| 4 종 | 200m ² | 15m |
| 5 종 | 250m ² | 15m |

내년 國際空港管理公團발족, 施設擴充등 향상

80年代 外國航空社 就航러시 대비

9月27日 교통부에 따르면 金浦空港등 현재의 國際 空港은 교통부가 직접 운영, 모든 施設과 管理權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정부가 出資한 特殊法人體를 발족시켜 이 法人體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부가 이같이 國際空港管理運營을 民間主導型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觀光客을 비롯 航空人口 增加에 따라 金浦·金海·濟州空港 利用客이 늘어나고 있고, 金浦空港이 美州地域과 유럽·아시아地域의 樞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空港의 施設擴充 및 서어비스向上을 위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0年代에는 外國航空社들이 서울就航의 러시를 이룰 전망이어서 보다 규모가 크고 施設 및 運營面에서 先進國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空港管理運營을 外國처럼 民間主導로 바꾸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一次로 金浦空港을 國際空港管理公團에 운영권을 넘길 방침이다.

새로 발족될 國際空港管理公團은 현재 空港施設을 정부 출자로 하고, 신규투자부분은 民間企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金浦 및 濟州空港은 施設이 貧

弱해 年次的으로 擴張을 추진중인데 金浦空港은 내년 6월까지 擴張工事を 끝내 현재의 旅客收容能力을 3 배로 늘리게 된다.

大都市開發, 廣域的 次元에서

大都市整備法案 제정 추진 - 건설부

정부는 서울·釜山·大邱 등 大都市를 大都市圈으로 설정하여, 지역단위별로 한정되었던 도시기능을 圈域化 함으로써 狹意의 都市概念에서 발생하던 문제들을 廣域的으로 해결하기 위해 大都市圈 整備法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9월27日, 건설부가 마련 与党圈 심의에 넘긴 이 法案은 ① 都市의 人口 및 産業의 적정 배치와 ② 土地利用計劃의 효율화 ③ 都市間을 연결하는 交通·通信·上下水道 등 社会間接資本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大都市問題를 폭 넓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法案은 대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건설부장관이 大都市圈을 ① 既存市街地 整備地域 ② 市街地開發予定地域 ③ 綠地保存地域 등 3개 지역으로 구분·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

既存市街地 整備地域은 人口·産業이 집중된 기존시가지의 정비를 위한 지역으로 人口·産業의 적정규모를 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① 土地利用計劃, ② 特定施設의 制限区域範圍 ③ 公共施設의 整備, ④ 建築物의 規模, ⑤ 疏散施設 범위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제하여, 都市開發과 再開發事業을 추진한다.

시가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한 지역은 市街地開發 予定 地域으로 지정, 단계별 開發計劃을 수립하고 土地区劃整理事業을 통해서 택지를 개발토록 한다.

綠地保存地域은 대도시 구역밖의 녹지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自然綠地保存地域으로 지정하여 都市와 都市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 이 法案은 大都市 및 既存都市에서 疏散되는 人口 및 産業을 수용할 수 있도록 大都市圈 外廓地域에 新都市開發地域을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既存市街地에서 이전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의 혜택을 주는 동시에 우선분양의 혜택을 입은 자는 土地利用計劃을 사전에 承認받게 하였다.

또 市都市와 既存都市의 人口集中을 유발하는 시설인 ① 公害工場 ② 専門學校 이상의 教育機關 ③ 綜合都売市場 ④ 百貨店 ⑤ 學校 등에 대해서는 市長·都知事가 移轉을 命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移轉에 필요한 ① 보상과 금융지원, ② 도시개발토지 우선분양, ③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大都市圈 整備計劃을 사전 심의·심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國務總理를 위원장으로 한 大都市圈 整備計劃 委員會를 두기로 하고 있다.

레미콘協會設立 추진, 過當競争 등 防止

双竜·江原産業·振星·現代·東亜 등

9월28日 업계에 의하면 5개 레미콘 市販業체들은 최근 잇다른 모임을 갖고 과당경쟁의 지양, 믹서트럭 운전원 스카우트 방지 그리고 업계의 종합적인 정부 건의를 위해, 각사 부장급 1명씩 파견되어 레미콘協會의 정식 발족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금년 하반기에 들면서, 레미콘業界의 가동률이 저조한 가운데 이같이 협회 설립이 급진전을 보게 된 배경에는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가격유지가 초점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双竜 등 선발업체는 시멘트판매 수단으로 레미콘 사업을 시작했으나, 현장 콘크리트보다 레미콘이 유리하다는 건설업계의 인식이 높아져 수요가 급성장, 자체 사업성의 밝은 전망으로 江原産業에 이어 振星레미콘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고, 現代建設·東亜建設 등도 자가소비단계를 벗어나, 市販을 단행하는 등,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후발업체의 진출 러시로 생산 능력은 서울의 경우, 시간당 2,600m³로 작년에 비해 300%가 늘었으나 올해 수요 신장은 60%선에 머물러, 下半年에 들면서 가동률이 평균 45%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특히 民需用的 경우 덩핑 현상에 두드러지고, 대금지불조건도 최장 6개월까지 어음이 통용되는 등, 레미콘업계는 유례없는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었다고 한다.

서울市 機構 대폭 개편

31課 폐지 50課 신설 建築局 등 신설, 住宅局은 개편

9월28日 서울市는 오는 10월1日을 기해 千戶·恩平 2개 出張所를 区로 승격시키고 建築局·道路局을 신설하는 등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31個課를 폐지하고 50個課를 신설 내지 명칭 변경 하였다. 건축관련 기구의 개편상황은 다음과 같다.

- ▲ 建築局(신설) = 建築行政課 신설, 都市整備課를 再開發 1課로, 住宅改良課는 再開發 2課로 명칭변경.
- ▲ 住宅局 = 住宅建設事業所 폐지, 住宅工事課 신설.
- ▲ 環境局 = 清掃 1, 2課를 清掃課로 통합, 環境課는 環境 1, 2課로 분리
- ▲ 道路局(신설) = 建設行政課와 施設管理課를 道路管理課로 통합
- ▲ 水道局 = 水源課와 施設課를 水源施設課로 통합
- ▲ 下水道局 = 下水施設 1課와 2課를 下水施設課로 통합.

共同住宅 瑕疵補修保證 1~2年으로

하자보증보험 신설도 - 건설부

10월3日, 建設部는 아파트의 시설별 瑕疵補修期間과 아파트建設業체에서 瑕疵補修保證金을 사전에 예치하는 것을 주

요골자로 한 共同住宅 管理規則을 제정 法制처 심의에 넘겼는데 오는 11月初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규칙에 의하면 종전에 아파트 및 聯立住宅의 瑕疵 補修 期間을 일률적으로 1年으로 규정한 것을 施設別·材料別 耐用年數를 감안, 主要施設別 瑕疵補修期間을 1~2年으로 구분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瑕疵補修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주민과 건설업체간의 마찰을 없애고 瑕疵補修期間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① 문틀 등 나무종류의 형태가 휘틀리는것을 비롯 ② 마루판 들뜨는것 ③ 미장공사의 균열 및 들뜸 ④ 造景 工事의 不實 ⑤ 노출된 配管·配線 工事는 종전대로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하고 道路沈下 등 土木 工事, 發電 및 變電 設備의 不良, 昇降機의 고장 및 불량 3mm이상의 콘크리트 균열, 屋上 및 浴室등의 漏水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확정했다.

건설부는 하자보수의 신속한 이행과 아파트建設 業體의 倒産 등에 따른 入住者 보호 및 責任補修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建設 業體는 하자보수보증금을 入住者 自治會에 납부토록 규정했다.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入住者 自治會와 구성된지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하고, 自治會에서는 아파트建設 業體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韓半島 地震發生圖 처음으로 作成

은 江流域이 發生 빈도높아, 平壤 60회로 최고

서울大 自然大 地質學科의 鄭鳳日教授(地球物理学)는 우리나라에서 發生했던 2,000여회의 地震記錄을 분석, 처음으로 韓半島의 地震發生圖를 작성했다. 이것은 서울大의 韓祐勳教授(國史學)가 분류해 놓은 事實을 기초로 三國時代부터 1907年에 이르는 동안의 地震記錄을 통계처리 하여 완성시킨 것이다.

鄭教授가 記錄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地震은 대개가 水系에 따른 河谷地帶에서 일어나는데 地震發生 頻度가 높은 지역은 大同江·洛東江·錦江·柴山江 등의 河岸 地域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강물이 地震發生 可能性이 있는 地殼構造帶를 따라 흐른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地震發生度를 보면 洛東江流域의 尙州 33회, 星州 28회, 金海 25회, 安東 24회인데 비해, 機張 12회, 彦陽 11회, 蔚珍 7회 등으로 海안쪽은 발생빈도가 낮다.

錦江流域도 빈도가 높는데, 公州 34회 淸州 29회, 忠州 28회의 기록이 있으며 역시 海안지역인 藍浦 8회, 保寧 6회 보다는 3배의 횟수를 보이고 있다. 근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洪城은 지질보다는 斷層構造에서 오는 지진으로 보고 있다.

柴山江 流域은 洛東江이나 錦江流域보다는 훨씬 적어 光州 14회, 羅州 9회, 潭陽 8회, 靈岩 6회를 기록하고 있다.

大同江流域도 地震多發地域의 하나로 平壤이 60회, 江西 25

회, 咸從 16회, 竜岡 11회 등 상당히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 地震發生圖 작성에 이용된 기록들은 日本의 기록보다 자세한 것이며, 특히 李朝家錄 등의 記錄은 상당히 정확성을 갖고 있었으나 地震의 強度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이 記錄은 우리나라가 14~16세기에는 상당히 많은 地震이 발생했으나 17세기에서 170年間은 地震發生이 크게 줄었으며 19세기말에 이르러 다시 地震發生이 잦아지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都心·幹線에 都市設計制度 신설

設計·監理業務 분리 建築士試驗制度 改善—건설부

法改正 추진

정부는 都市設計에 의한 都市機能 및 美化 증진을 위해 都市部나 主要幹線道路邊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建築主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市長·郡守가 만들어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받은 都市設計대로 건축키로 하고, 이에 따른 규정을 建築法에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10月 6日 建設部에 의하면 현재 건축주나 건축사가 자기의 사대로 건축함으로써 도시기능이나 미화에 큰 지장을 주고있다고 판단, 도심부의 경우 이를 시장·군수가 종합적인 안목에서 만든 都市設計대로 추진키로 했으며,

造景義務化 規定은 현재 都市計劃法上 用途地域에 상관없이 工場의 경우 대지면적의 15%, 기타 건축물은 10%로 되어 있는 것을 自然 및 生産綠地地域은 40%, 기타 지역은 반드시 조경토록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自然 및 生産綠地地域이 아닌 기타地域에서 900명 이상의 工場을 건축할때에는 대지면적의 15% 이상에 조경하고 石油化學工場은 지역에 상관없이 조경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建築法 施行令에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번두리 商業地域에도 自動車 整備工場의 건축을 허용, 자동차수리의 편의를 꾀할 방침이며

單獨 및 合同 建築士事務所에서도 共同住宅 등의 아파트監理를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綜合建築士事務所制度를 신설, 이들로 하여금 共同住宅 등의 監理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이는 同一人의 監理와 設計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建築士試驗制度를 改善, 현행 1차시험 과목중 建築計劃 및 設計科目을 削除하여 建築構造·施工·法規 등 3科目으로 하고 2차시험과목은 建築計劃과 設計의 2科目만으로 하기로 했다.

88年 올림픽 서울誘致計劃—鄭市長 發表

각종 競技場 85년까지 건설, 地下鉄 3·4號線 84年 완공 第2의 國際空港 건설 추진, 選手村·宿泊施設도 계획

鄭相千 서울특별시장은 10月 8日 “오는 88년도 제24회 올림픽大會의 서울誘致方針을 최종 확정, 지난 9月21日자로 政

府의 承認을 받아 곧 國際올림픽委員會 (IOC)에 공식 요청기로 했다”고 發表했다.

鄭市長은 “올림픽유치”란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준비작업을 계획적으로 추진, 현재 30%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가운데는 국제규모의 서울綜合運動場 건설, 올림픽選手의 설정계획, 地下鐵의 건설, 道路網의 확충 및 各種 都市施設의 정비·정돈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밝힌 올림픽 유치를 위한 주요계획은 다음과 같다.

(1) 競技場施設 ▲收容人員 10萬의 서울綜合運動場 메인스타디움 83년 완공, ▲2萬 수용규모의 室內體育館 준공, 사용중, ▲국제규모의 室內풀장을 80년도 완공, ▲벨로드롬(사이클 경기장) 및 부대시설 83년 완공, ▲補助競技場 85년 완공

(2) 交通對策 ▲地下鐵 2號線을 80년중 완공, 도심지와 서울종합운동장을 연결, ▲2號線의 남은 區間과 3, 4號線 57km를 84년까지 완공, 서울시 교통인구의 75%를 처리, ▲金浦國際空港 擴張工事を 83년까지 완공, ▲計劃中인 제2의 國際空港 건설을 추진, ▲空港과 都心圈 및 競技場間의 連結道路網계획 추진

(3) 選手村 및 宿泊施設 ▲현재의 숙박시설 외에 호텔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 ▲서울近郊에 宿泊施設 건립, ▲서울 綜合運動場 근처에 선수촌 부지를 마련, 설립계획을 마련중

(5) 레저등 기타시설 ▲163萬坪 규모의 서울 大公園을 85년에 완공, ▲西部公園등 대규모 慰樂施設을 서울近郊에 3~4개 더 건설할 예정.

80년에 2,580개 病床 民間綜合病院신축 추진

종합병원없는 工團·邑 이하 地域에

10月 8日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保社部가 정한 56개 진로지구에서 구역내 綜合病院이 없는 2개 지구 및 3개 工業團地에 540개 病床 지구내에 綜合病院은 있지만 人口 10萬명당 病床數가 100개 미만인 취약지구에 2,040개 病床등 내년중에 모두 2,580개 病床의 民間綜合病院을 신축하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개 病床당 1,000萬원의 施設費를 각 금융기관이 연 11.5%로 5年 据置 10年間割償環條件으로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막기 위해 연 7%의 利差를 國庫에서 보상해 주기로 결정 새해 予算案에 21億 2千 3百萬元을 計上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病床당 1萬달러의 裝備購入費를 지원해 주기 위해 日本海外協力基金(OECF)과 3千萬달러 규모의 借款導入을 교섭중이라 했다.

정부는 78年末 현재, 人口 10萬당 144개에 그치고 있는 病床數를 내년말까지는 160個線으로 늘리고, 81年에도 1,400개 病床의 綜合病院 신축을 低利資金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綜合病院 新築資金을 醫療胞弱地區에서 개인醫院들이 法人을 만들어 綜合病院을 신축하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綜合病院을 경영하고 있는 法

인이 醫療胞弱地區에 分院을 설치할 때에도 지원해줄 계획이지만,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개인명의의 綜合病院 신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果川 新都市建設 11月 着工, 83年 開發完了

3,369億원 投入, 人口 4~5萬의 田園都市로

정부는 京畿道 始興郡 果川面 文原里 및 官門里 일대 696,000평에 건설할 果川都市開發計劃을 확정, 총 3,369億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부터 착공, 83년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10月 9日 建設部가 마련한 同計劃에 의하면 여기에 政府第 2綜合庁舎와 人口 45,000(10,030호)인을 수용하며, 開發面積의 46%를 住居地域 60%를 商業地域 23%는 公園綠地로, 나머지 25%에는 기타시설을 갖춘다는 土地利用 計劃을 마련하고 있다.

3단계사업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1단계사업(79~81年, 52%), 2단계사업(81~82年, 33%), 3단계사업(82~83年, 15%)으로 마칠 예정이다.

住宅公社는 이 일대 土地를 買取, 開發後 實需要者에게 분양할 계획이며, 공사착공과 함께 올해 안에 78億원을 풀어 土地買取에 나설 예정이다. 개발후의 宅地分讓대상자는 78.10.25이전 開發地區內의 家畜소유자이며, 호당 70평 기준의 단독필지를 분양하거나 희망에 따라 지구내에 건설하는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주기로 했는데, 이 분양은 土地買取에 따른 보상과는 별도로이다. 건설예정인 주택은 단독 및 연립주택의 1,110호이고 나머지 8,920호가 아파트이다.

建設部는 果川을 충분한 綠地空間이 확보된 전원적 도시로 구성하기로 하고, 標高 60m 이상은 綠地로 保全하는 한편 最小宅地面積도 70평 이상으로 강화하고 인접 주택과 사이에는 담장이 없게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都市開發의 일반경향인 路線商街를 자양, 주거단위별로 서어비스 기능을 배치, 생활환경을 블록화하기로 했으며 정부제 2 종합청사를 중심으로 주위 야산 등 自然環境에 맞도록 건물높이를 균형있게 맞추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다.

또 도시특성과 지구별 구별감을 고려한 造景計劃으로 도시특성을 강조하는 외에 자전거 및 보행자용 도로의 구성으로 생활의 안정감을 확보하기로 했고 전구역에 共同溝의 설치와 電力 및 通信線의 地下化로 소위 電柱없는 도시 건설로 향후 개발될 도시의 표본으로 삼기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人口 10,000인당 國民학교 1개교 기준으로 國民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교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빗물과 汚水의 분리식 위생수도 설치 필지마다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시설 완비하기로 했다. 地番표시에 있어서 西歐式 住居表示方法 등을 적용,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상적인 都市建設計劃을 구상하고 있다.

韓國 海外建設 急成長

契約高 32億費(76年)서 69億弗(78年)을 기록

세계의 각종 工場建立 및 建設都綜順位 1位를 지켜오던 美國은 日本・韓國・西獨・이탈리아 등 4個國의 급격한 成長으로 5位로 밀려났으며, 이들 4개국중에서도 韓國은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서 지난 76년 32億달러이던 建設契約高가 78년에는 69億달러로 급증했다고 美商務省이 최근 발표했다.

美 商務省은 지난 76년부터 78년까지의 全世界 建設工事 및 工場建立現況에 관한 調查報告書에서 지난 76년 전체 契約高의 16%에 이르는 86億달러를 차지, 1位를 기록했던 美國은 78년에는 7.9%인 32億달러로 5位에 처졌다고 지적하고 같은 기간중, 가장 괄목할 점은 韓國을 비롯 브라질・필리핀・파키스탄・인도 등 開發途上國들의 등장이라 했다.

이 보고서는 또 韓國은 契約高에서뿐만 아니라 技術的인 水準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강조하고 이들 4개국 이외에 브라질・파키스탄・인도 등도 그들의 노동자가 파견되어 있는 中東地域에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美國이 점차 이 분야에서 침체되어 왔으며 여타 국가와는 달리 政府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됨으로써 국내 경쟁력이 약화,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建設會館 建立計劃

江南區 鶴洞에 10층규모 建設關係 協會・學會 등 入住방침

10월17日, 알려진 바에 의하면 土地開發公社가 社屋新築을 위해 확보해둔 江南區 鶴洞일대 5,000평 가운데 2,000坪을 建設共濟組合이 買入, 여기에 10층 규모의 建設會館을 건축할 예정이라 한다.

이 建設會館에는 大韓建設協會를 비롯 海外建設協會・住宅事業協會・全國單種協議會・建築士協會・土木 및 建築學會가 입주할 방침이다.

한편 建設共濟組合은 土開公 소유의 地地買入 작업에 나서는 동시에 建設會館 基本設計작업에 들어갔으며 會館 建立의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會館建立委員會 구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共同住宅에 分流式과 下水施 의무화

서울시, 漢江水質保存對策의 일환으로

10월17日 서울시는 漢江水質保存對策의 일환으로 작년 11月 이후의 신축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共同住宅에만 적용해오던 生活下水와 雨水管을 따로 설치하는 下水道 分離施設規定을 기존 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하고, 금년말까지 이를 모두 개수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갑작스런 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당초 入住者에게 돌아갈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新築의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었으나 이들 기존아파트 가운데 대부분의 下水道施設이 노후에 下水處理機能이 마비돼버려 環境汚染原因이 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雨水管을 별도로 만들고 기존 下水管施設도 전면 보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0月末까지 各區別로 관할 지역내에 78年 11月 이전에 事業承認 또는 竣工된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共同住宅의 下水 不水道施設을 점점, 單一管으로 빼 있는 것을 금년말까지 二元化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分流式 下水處理를 할 경우 처마홈통 등을 통해서 모아진 有然水는 그대로 漢江으로 흘러들어가고 부엌이나 목욕탕・화장실・정화조 등에서 나오는 生活下水만 따로 모아 下水處理場으로 보내 정화 처리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單獨住宅에 대한 이같은 二次化된 下水道施設 설치 여부에 대한 현단계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共同住宅 연면적의 합계 825m² 넘으면

建設業 免許者만이 施工—건설부 유권해석

10월18日 건설부에 의하면 建設業法 제4조 규정에 의거, 共同住宅 등 特殊建築物은 825m²까지 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는 시공할 수 있으나 여러棟의 共同住宅이 一團의 地地內에 있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825m²를 초과할 때에는 建築工事業 또는 土木・建築工事業免許를 갖지 않은 住宅建設業者는 직접 시공할 수 없다고 有權解釋했다.

이와 아울러 건설부는 점포 상가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의 시공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이는 一般 工事に 해당되므로 單種工事業체는 도급 시공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했다.

用役 先受金制 法制化 촉구

人件費 부담높은 특성 감안—技術用役業界

技術用役業界는 用役業이 人力中心의 技術集約産業인 점을 감안, 工事契約時 外國과 마찬가지로 선수금제를 적용, 법제화 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10월18日 技術用役協會 및 業界에 의하면 技術用役業은 技術集約産業으로 工事費 中 人件費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영 기업체나 정부기관에서는 공사계약시 선수금을 주지 않고 工事完了後 工費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資金回轉이 지연, 人件費 滯賃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미국・일본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用役工事契約時 工費의 일정액을 선수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0평이상 住宅・商業用建物 내년上半期까지 규제

高建設談—住宅投資 GNP의 6%로

高在一 건설부장관은 10월19日, 현재 시행중인 慰樂施設 등 일부 商業用 建築禁止措置를 포함한 각종 建築規制措置를 내년 上半期까지는 풀지 않겠다고 지적, 不動產景氣狀況을 보

아 내년 下半年에는 현재 남아있는 建築規制措置를 해소할 뜻을 비쳤다.

高長官은 이날 建築材料값과 人件費가 안정된 지금 40평이상의 單獨住宅 45평 이상의 共同住宅등 大型住宅에 대한 建築規制措置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으나 중요한 규제조치를 이미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내년 下半年까지는 추가해제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언제 또 투기가 울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을 더 두고 보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高長官은 이어 住宅難 解消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住宅投資增大는 필요한 것이며, 이에 따라 GNP(국민총생산)에 대한 住宅投資比率을 현재 3.8%수준에서 6%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서는 國防費 등 다른 部門에의 투자가 먼저 필요하고 또 建設部門에서도 道路, 上下水道事業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사업에 어느정도 마련된 뒤, 住宅投資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北坪에 대규모 工業團地 建設

81年 1단계 完工, 786,600평에

정부는 江原道 北坪港 건설 1단계 사업이 年内에 마무리 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既存市街地인 北坪邑 松亭里 및 竜井里 일대 786,600坪에 北坪工業基地 港灣背後團地를 조성키로 하고(1단계 사업)이달 안에 착공, 81年 12月末까지 事業을 마치기로 했다.

10月19日 建設部에 의하면 北坪港灣과 인접한 松亭里 및 竜井里 일대에 建設될 北坪工業基地 港灣背後團地로 기존 밀집 시가지인 松亭里·竜井里地域을 포함한 786,600坪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江原道知事로 되어있다.

현재 정부가 工業基地로 개발키로 한 이들 지역은 北坪港에 인접한 기존밀집 시가지로서, 北坪港灣 이전 건설에 따라 이들 지역을 工業基地로 개발키로 하고 기존시가지인 松亭里와 竜井里 주민들은 北坪港 북쪽에 위치한 泉谷里로 이주시키기로 했다.

工業團地建設事業 착공과 함께 정부는 이 지역의 土地収容에 나서는 한편, 관계도서를 建設부의 江原道 北坪地區 支援事業所에 비치, 利害關係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다.

賃貸借期間 1年 이상으로 特別法案 마련

無住宅遮民의 住居生活安定을 위해—유정희

政府·与党은 住宅을 마련할 수 없는 無住宅 低所得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現行 民法에 대해 特別法이 될 賃貸住宅

入住者 保護에 관한 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10月20日 維政會가 마련한 이 法案에 의하면 賃貸 面積이 25평 이하인 賃貸住宅에 대해서는 ① 賃貸借期間은 1年 이상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이 1年 미만이거나 賃貸借期間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기간을 1年 이상으로 하고 ② 賃貸借 人의 同意 또는 請求가 있는 경우와 기타 正當한 事由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賃貸借 契約을 解除 또는 更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全文 7条 附則으로 된 이 法案은 또 賃貸借期間이 滿了되기 1개월전에 賃貸借 人이 상대방에 대해 契約更新의 거절이나 條件의 變更通知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契約滿了日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간주하며, 賃貸借 契約期間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限, 賃貸借 人은 賃貸借 人에게 賃貸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 法案은 賃貸借의 權利繼承은 法律的인 相續人이 아니더라도 事實상의 婚姻關係者나 同居人이 할 수 있도록 하여 遮民의 경우 訟事없이 權利繼承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같은 法이 제정될 경우 現行 民法에 규정된 賃貸借 契約 條項과 중복이 될 경우 賃貸借住宅 入住者 保護에 관한 法律이 우선 적용이 되도록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無住宅 家口는 총 6829,000家口中 2,427,000家口로서 37%에 달하고 있으며 都市에는 56%가 월세 또는 전세등의 형태로 賃貸借하고 있다.

住宅難 解消 계속 不振

需要 29万戶 증가에 20万戶 供給

현재와 같은 住宅建設 추세로는 住宅難 解消가 요원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月20日 建設부에 의하면 지난 60년부터 78년까지 19年間 年平均 家口增加數는 2.7%인 18,400호에 이르고, 78年 현재 年間 減失住宅數도 기준주택의 2%인 105,000호에 이르고 있어 年間 신규 주택수요만도 289,000호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住宅建設은 작년에 異例的인 建築景氣 好況으로 사상 최고인 30万戶에 달했으나 금년의 경우, 건축경기 침체로 목표 278,000戶에 크게 미달한 20万戶내외에 그칠 전망이어서 住宅難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